

## 2014년도2학기 공공경제학연구-전영섭

설 문 내 용	결과	전체
<b>1. 이 과목 또는 강좌를 수강하데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?</b>		
(1) 필수과목이기에	6(40%)	15(100%)
(2) 듣고 싶은 다른 과목이 선수과목이어서	0(0%)	
(3) 지식함양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	7(47%)	
(4) 취업 또는 대학원 진학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	1(7%)	
(5) 학점을 잘 준다고 해서	0(0%)	
(6) 명강의로 소문나서	1(7%)	
(7) 재수강	0(0%)	
<b>2. 출석을 어느 정도 하였습니까?</b>		
(1) 1/4 미만	0(0%)	15(100%)
(2) 1/4 이상 2/4 미만	0(0%)	
(3) 2/4 이상 3/4 미만	1(7%)	
(4) 3/4 이상 그러나 몇 차례 결석	2(13%)	
(5) 거의 100%(거의 매번 출석)	12(80%)	
<b>3. 이 과목을 수강하면서 얼마나 공부하였습니까? ((1)-(3)은 수업 출석률이 낮은 경우)</b>		
(1) 거의 공부하지 않았다	0(0%)	15(100%)
(2) 시험 때만 하였다.	0(0%)	
(3) 과제와 시험이 있을 때만 하였다.	0(0%)	
(4) 대체로 수업을 열심히 들었지만 연습복습은 거의 하지 않았다.	12(80%)	
(5) 수업을 열심히 듣고 연습복습을 비교적 철저히 하였다.	3(20%)	
<b>4. 강의의 내용 및 진행은 강의계획서에 제시된 바와 같았습니까?</b>		
(1) 전혀 그렇지 않았다.	0(0%)	15(100%)
(2) 그렇지 않았다.	0(0%)	
(3) 그저 그러했다.	2(13%)	
(4) 대체로 그러했다.	10(67%)	
(5) 매우 그러했다.	3(20%)	
<b>5. 사용된 교재, 참고문헌은 학습에 도움이 되었습니까?</b>		
(1) 전혀 그렇지 않았다.	0(0%)	15(100%)
(2) 그렇지 않았다.	0(0%)	
(3) 그저 그러했다.	1(7%)	
(4) 대체로 그러했다.	7(47%)	
(5) 매우 그러했다.	7(47%)	
<b>6. 과제 및 시험은 강의 내용의 이해와 심화에 도움이 되었습니까?</b>		
(1) 전혀 그렇지 않았다.	0(0%)	15(100%)
(2) 그렇지 않았다.	0(0%)	
(3) 그저 그러했다.	1(7%)	
(4) 대체로 그러했다.	10(67%)	
(5) 매우 그러했다.	4(27%)	
<b>7. 강의 내용은 전문적인 지식습득에 도움이 되었습니까?</b>		

(1) 전혀 그렇지 않았다.	0(0%)	15(100%)
(2) 그렇지 않았다.	0(0%)	
(3) 그저 그러했다.	0(0%)	
(4) 대체로 그러했다.	7(47%)	
(5) 매우 그러했다.	8(53%)	
8. 교수님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(질문, 면담, 게시판, e-mail)를 제공받았습니까?		
(1) 전혀 그렇지 않았다.	0(0%)	15(100%)
(2) 그렇지 않았다.	0(0%)	
(3) 그저 그러했다.	0(0%)	
(4) 대체로 그러했다.	10(67%)	
(5) 매우 그러했다.	5(33%)	
9. 과제의 분량은 적절했습니까?		
(1) 너무 적었다	0(0%)	15(100%)
(2) 적은 편이었다.	0(0%)	
(3) 적절했다.	14(93%)	
(4) 많지만 할말했다.	1(7%)	
(5) 너무 많았다.	0(0%)	
10. 강의 내용의 난이도와 본인의 이해도에 관한 질문입니다.		
(1) 너무 쉬웠다.	0(0%)	15(100%)
(2) 쉬운 편이었다.	0(0%)	
(3) 적절했다.	6(40%)	
(4) 어렵지만 할만했다.	9(60%)	
(5) 너무 어려웠다.	0(0%)	
11. 교수님의 강의 속도와 강의내용의 분량에 관한 질문입니다.		
(1) 매우 느슨했다.	0(0%)	15(100%)
(2) 느슨한 편이었다.	0(0%)	
(3) 적절했다.	12(80%)	
(4) 딱딱하지만 할만했다.	3(20%)	
(5) 너무 딱딱했다.	0(0%)	
12. 이 과목의 수강을 다른 친구 및 후배들에게 추천하겠습니까?		
(1) 전혀 그렇지 않았다.	0(0%)	13(100%)
(2) 그렇지 않았다.	0(0%)	
(3) 잘 모르겠다.	2(15%)	
(4) 대체로 그러했다.	10(77%)	
(5) 매우 그러했다.	1(8%)	
13. 실습 또는 연습시간(TA session)은 유용했습니까?		
(1) 전혀 그렇지 않았다.	0(0%)	3(100%)
(2) 그렇지 않았다.	0(0%)	
(3) 잘 모르겠다.	0(0%)	
(4) 대체로 그러했다.	0(0%)	
(5) 매우 그러했다.	3(100%)	
14. 담당교수는 유능했습니까?		
(1) 전혀 그렇지 않았다.	0(0%)	3(100%)
(2) 그렇지 않았다.	0(0%)	
(3) 잘 모르겠다.	1(33%)	

(4) 대체로 그러했다.	0(0%)	
(5) 매우 그러했다.	2(67%)	
전체		

기타 건의사항

- 교재의 모든 내용을 학습하는 것보다도 흥미로운 혹은 실제 사례 및 연구 분야에 적용 가능한 챕터들을 선별적으로 학습했다면 더욱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.
- 너무 많이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. 논문에 쓸 수 있을 새로운 방법론을 배우게 되어 매우 뿌듯하고 유용하게 쓰일 것 같습니다. 또한 한 챕터를 맡아서 발표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, 이를 준비하면서 더 많이 배운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.